

기금운용위원회
안건(의결)

공 개

2026~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

2026. 4. 13.

재 정 경 제 부

'26~'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(요약)

1. 검토 배경

- **(개발협력 환경)** ODA와 공여국의 경제·안보 이익간 연계가 강조되는 가운데, 개발재원의 수요·공급 gap은 지속 확대
 - 개발협력수단의 통합 운용을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, 그간의 양적 확대에 걸맞은 대국민 신뢰 확보에 대한 요구도 증가
- **('25년 운용실적)** 대형·고부가 사업*을 통해 우리 산업·기업의 해외 진출을 직접 뒷받침하고 향후 지속적 수주기반 마련
 - * 탄자니아 국립병원(3.6억불), 모로코 철도차량 공급(14.7억 유로) 등
 - EDCF 투명성·공정성 및 사업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실시

2. 중기 운용 방향

- **(기본방향)** EDCF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
 - 우리 산업·기업·경제·문화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중물이자,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수단으로 운영
- **(승인목표)** 사업 성과 및 국익 기여도를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, 향후 3년간 평균 약 3조원 규모 승인목표 설정
 - 개도국 후보사업이 EDCF 투자 방향에 부합하도록 후보사업 총량과 우선순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
- **(중점분야)** AI·디지털, 문화, 그린, 공급망 등 우리 산업·기업이 강점을 보유하고 개도국 지원수요가 높은 분야에 집중
 - 상징성·파급효과 높은 각 분야별 시그니처 사업 적극 발굴
- **(지역배분)** 지리적 인접성 및 경제 연결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 집중하고, 아프리카·중남미는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지원

3. 중점 추진과제

1]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

- ① **(미래 신기술)** EDCF 인프라에 AI 요소를 내장(AI-embedded) 하여 대표 우수사례를 우선 창출하고, 점진적 확산 추진
- ② **(소프트파워)** 문화 인프라 건설로 문화산업 육성 관련 우리의 정책 경험을 전수하고, 무상 ODA와 연계로 K-컨텐츠 확산
- ③ **(핵심자원 확보)** 전략자원 보유국에 EDCF 지원 확대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, 공급망 사업에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
- ④ **(기업지원)** 기업의 EDCF 참여 촉진을 위해 기술지원을 강화하고, 수원국 정부에 대한 우리 기술 홍보도 적극 실시*

* 우리 기업의 각종 애로 완화를 위해 수원국 정부와 협의도 강화

2] 국민 신뢰 제고

- ① **(투명성 제고)** 사업정보 원칙적 공개, 정책실명제·사업이력제 실시 등 외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시행
- ② **(책임성 제고)** 내부신고제 및 현장점검 강화 등 통제장치 정비

3] 개발효과성 제고

- ① **(개발수단 통합 운영)** 여러 유·무상 ODA 수단을 통합한 K-ODA 패키지를 제공하고,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협력도 강화
- ② **(가시성 제고)** 수원국 국민들이 EDCF 지원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가시성 제고 방안 마련
- ③ **(사업관리)** 전문가 파견 및 현지 인재 채용 등으로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, 집행실적을 보다 면밀히 수시 점검

4] 자금운용 효율성 제고

- ① **(사업 합리화)** 우리기업의 참여제한 및 장기지연 사업의 승인 취소를 검토하고, 관련 재원은 핵심분야에 재투자
- ② **(이익 환류)** 낙찰조건부 수혜로 인한 이익 일부의 상생기여금 납부(전략수출금융기금) 등 국내 수출생태계 강화에 동참
- ③ **(지속가능성 제고)** 금리체계 개편, 채권관리 강화 등 추진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검토 배경 | 1 |
| II. 중기 운용 방향 | 3 |
| 1. 기본 방향 | 3 |
| 2. 중기 운용 규모 | 4 |
| 3. 중점 분야 및 지역 배분 | 5 |
| III. 중점 추진과제 | 6 |
| 1.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 | 6 |
| 2. 국민 신뢰 제고 | 8 |
| 3. 개발효과성 제고 | 9 |
| 4.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 | 10 |
| IV. 향후 추진계획 | 11 |

I. 검토 배경

1 대내외 개발협력 환경

□ **(국익연계 강화)**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속에서 주요 공여국들은 ODA와 경제·안보 이익간 연계 강화*

- * (美) USAID 해체, UN 기후변화협약 탈퇴 등
- (英) 경제성장, 불법이민 문제해결 등을 개발협력 우선순위로 설정

○ 글로벌 사우스 新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ODA 역할 강화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

- 우리 정부도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('26~'30년)에서 대외전략과 개별사업 연계 강조*

* 전략성·통합성 높은 기획형 사업발굴 체계 구축, AI·문화를 중점분야로 추가

□ **(개발재원 gap 확대)** 공여국들의 재정긴축 및 국방비 증액 등 영향으로 ODA 지원규모는 감소 추세

- * (美) '26년 ODA 예산 16% 삭감
- (英) GNI 대비 ODA 예산을 '27년까지 0.5%에서 0.3%로 축소 계획

○ 이에 비해, 디지털 전환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개도국의 ODA 지원수요는 지속 확대*

* UN 지속가능 개발목표(SDGs)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부족액이 연간 2.5조 달러에서 4조 달러로 증가('24.4월)

□ **(질적 내실화 요구)** 개발협력수단 통합을 통한 효과성 제고, ODA 양적 확대에 걸맞은 대국민 신뢰 확보 요구 증가

○ 사업의 투명성·공정성 및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와 운용방식의 개선 필요

⇒ 개발협력환경에 비추어 EDCF의 '25년 운용실적을 점검하고, 향후 3년간('26~'28년) 운용방향을 검토

2 '25년 EDCF 운용실적

(1) 주요 성과

- **(해외진출 지원)** 대형·고부가가치 사업* 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직접 뒷받침하고 향후 지속적 수주기반 강화

* 탄자니아 국립병원(3.6억불), 모로코 철도차량 공급(14.7억 유로) 등

- 특히, EDCF 사업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은 역대 최대 수준인 3.6조원 규모의 해외 계약 체결

* 연도별 EDCF 사업 계약규모(조원): ('23년) 1.27 → ('24년) 1.38 → ('25년) 3.60

- **(질적 내실화)** ODA의 투명성·공정성 제고를 위한 EDCF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('25.12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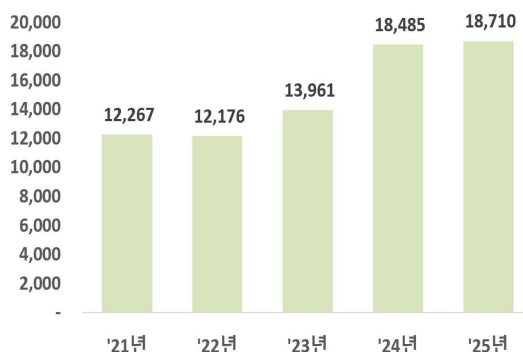
- 사후점검 전면 시행, 사후지원 한도 증액 및 대상 확대 등 사업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실시

(2) 자금 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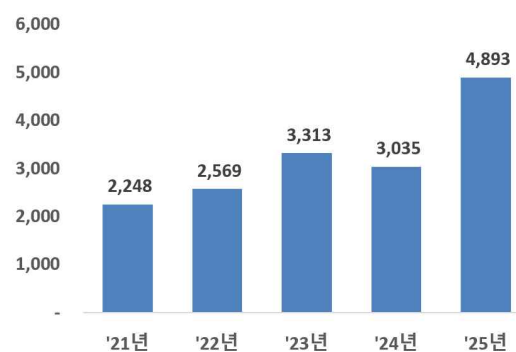
- **(용자지출)** 총 37개국, 156개 사업 대상으로 1.9조원 유상차관 집행(전년 대비 +1.2%)

- **(자체수입)** 역대 최대규모인 0.5조원(전년 대비 +61.2%) 수준의 용자원리금 회수

< 연도별 용자지출 규모(억원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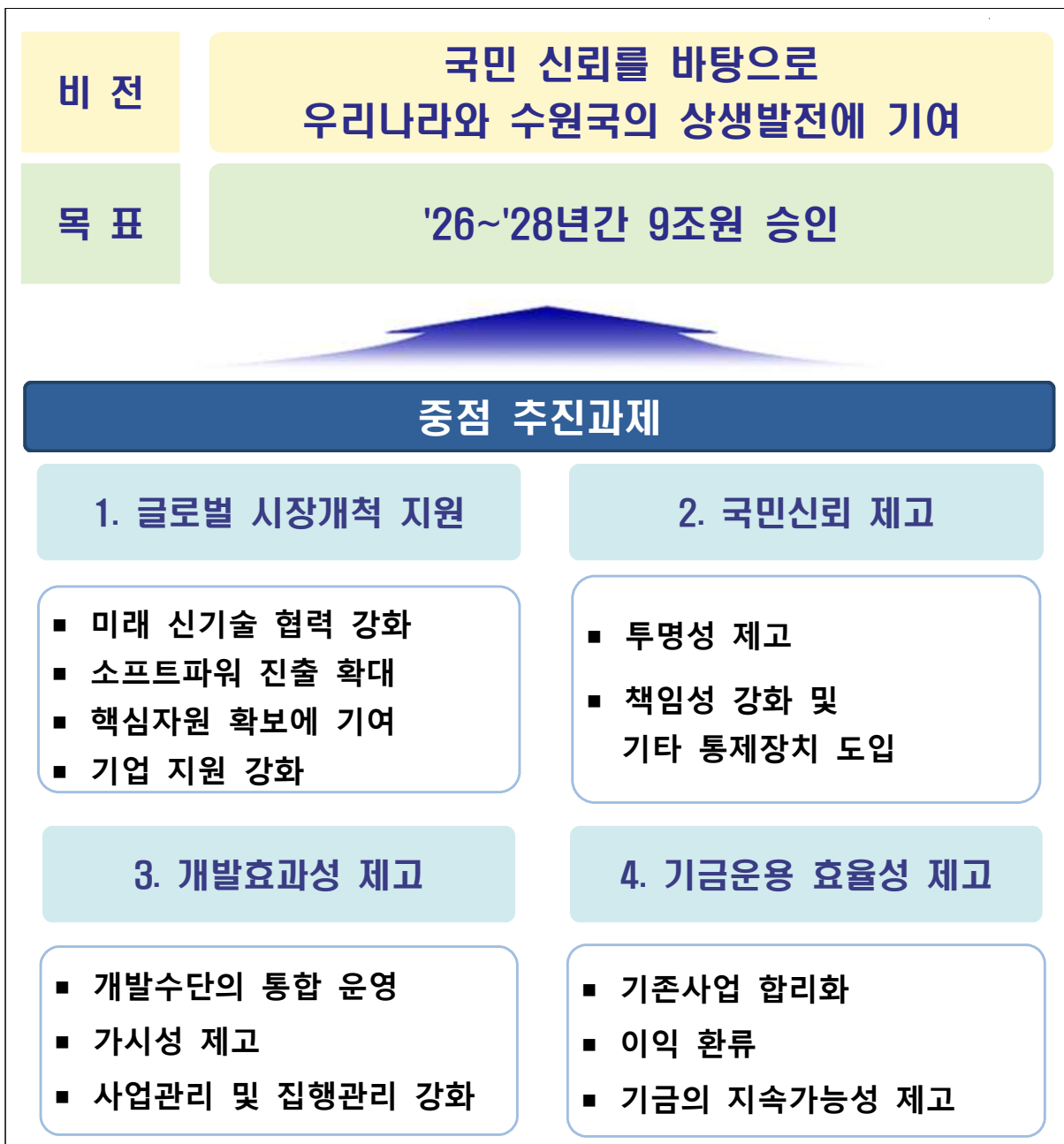
< 연도별 자체수입 규모(억원) >



II. 중기 운용 방향

1 기본 방향

- ◇ EDCF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
 - 우리 산업·기업·경제·문화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중물이자,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수단으로 운영
- ◇ 또한, 사업의 개발효과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



2 중기 운용 규모

◇ 향후 3년간 年평균 약 3조원 규모 신규 승인

- **(승인목표)** 사업성과 및 국익 기여도를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, 향후 3년간 평균 3조원 규모 승인목표 설정
 - 다만 승인목표는 향후 EDCF 재정여건 및 집행실적, 기존사업 합리화 규모 등에 비추어 탄력적으로 조정
 - 개도국 후보사업이 EDCF 투자방향에 부합하도록 후보사업 총량과 우선순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
- **(지원계획)**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목표*에 부합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
 - * 국제사회 위상 및 기여확대 요구, 한정된 재정상황 및 주요 공여국의 원조 축소동향 등 종합고려 → '30년까지 ODA 규모 現 순위권('24년 OECD DAC 32개국 중 13위) 유지
 - '26년은 전년 실적 대비 1.5% 증가한 1.9조원 집행
 - '27년 이후에는 사업별 절차 및 공정 진행도, 수원국별 정치·경제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집행가능 적정소요 반영

< OECD DAC 공여국 실적 >

| 순위 | 국 가 | ODA (백만불) | |
|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| | '25년(잠정) | '24년 |
| 1 | 독일 | 29,089 | 32,836 |
| 2 | 미국 | 28,954 | 65,475 |
| 3 | 영국 | 17,176 | 17,992 |
| 4 | 일본 | 16,218 | 16,494 |
| (중 략) | | | |
| 13 | 한국 | 3,875 | 4,031 |

< EDCF 연도별 신규승인 목표(조원) >

| 연도 | 승인 목표 |
|------|-------|
| '26년 | 3.0 |
| '27년 | 3.0 |
| '28년 | 3.0 |

3 중점 분야 및 지역 배분

(1) 중점 분야

- AI·디지털, 문화, 공급망, 그린 등 우리 기업·산업이 강점을 보유하고, 개도국의 지원수요가 높은 분야에 집중
 - (AI·디지털) 우리의 기술경쟁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시그니처 사업 발굴*
 - * AI 활용 효과 및 개도국 수요가 명확한 분야별로 AI 적용 대표사례 발굴, 법·제도, 공공솔루션에 대한 정책 컨설팅(KSP, EIPP)을 통해 AI 사업 발굴
 - (문화) 상징성·파급효과 높은 대형 사업을 지원하고, 무상 ODA와 연계 강화* 등으로 K-컬처의 글로벌 확산 지원
 - * 문화분야 정책자문(KSP) + 문화시설 건립(EDCF) + K-콘텐츠 개발·역량강화(무상ODA)
 - (그린)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녹색 인프라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, 그린 ODA 관리체계도 개편
 - (공급망)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 등을 위해 국익 차원의 공급망 협력사업을 발굴하고,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*
 - * (예) 사업발굴·자원개발 정책 수립(KSP) + 인프라건설(EDCF, EDPF) + 광물자원 개발(공급망안정화기금) + 정제련 가공공장 구축(수출금융 등)

(2) 지역 배분

- 지리적 인접성 및 경제 연결성을 고려하여, 아시아 지역 중점 지원 기조* 유지
 - * ('25~'27 EDCF 중기운용방향) 아시아에 50~60% 배분
- 그 외 아프리카·중남미 지역은 중점협력국* 중심으로 지원
 - * '26년 제4기 중점협력국 재지정 예정(국제개발협력위원회)

Ⅲ. 중점 추진과제

1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

(1) 미래 신기술 협력 강화

- **(AI)** EDCF 인프라에 AI요소 내장(AI-embedded)으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, 국내 AI 산업의 글로벌 진출 발판 제공
 - 먼저 개도국 수요가 높은 사업을 기반으로 AI 활용 효과가 우수한 대표사례*를 창출하고, 점진적 확산 추진
- * (예) EDCF발전소, 송·배전, BESS + AI전력수급 예측, 송배전 손실 탐지 등 마이크로 그리드 EDCF병원·의료 기자재 + AI진단 보조, 질병 조기에측 및 환자 모니터링, 유전자 연구 등
- **(디지털 전환)** 교통·공공행정·보건 분야 등 중심으로 디지털 인프라 및 시스템·운영을 결합한 통합형 사업 집중 지원

(2) 소프트파워 진출 확대

- 개도국의 문화 인프라 건설 지원으로,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의 정책 경험을 전수*
 - * (관련 사례) 케냐 콘자 스마트 디지털미디어센터(DMC) 사업 : 상암 DMC를 모델로 한 영화·게임·애니메이션 제작 센터 조성중
- 또한 한국적 요소를 활용한 EDCF 인프라의 디자인 품질 고도화 등으로 K-컬처의 글로벌 확산도 측면 지원
- 무상 ODA와 연계 강화를 통한 K-컨텐츠 확산* 등 추진
 - * (예) EDCF학교·병원 건설 + 무상교육·의료 현장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컨텐츠 제공

(3) 핵심자원 확보에 기여

- 핵심광물 등 전략자원 잠재력이 높은 개도국*에 EDCF 지원을 확대하여 협력기반을 구축하고,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
 - * (예) 베트남(희토류, 텅스텐, 요소수), 우즈베크(구리, 텅스텐, 리튬), 인도(흑연, 희토류) 등
- 이를 위해 EDCF 사업 발굴을 위한 정부간 정책협약에서 공급망 관련 내용도 함께 논의
 - 정책협약에 양국 재무부의 ODA 담당부서 외에도 공급망 관련 부처·부서의 참여 추진

(4) 기업 지원 강화

- **(사업참여 지원)** AI 및 공급망 등 관련 국내 기업의 EDCF 사업 참여 촉진을 위해 기술지원 강화
 - 전략설명회 등을 통해 수원국별 EDCF 사업정보 등을 제공하고, 기업의 입찰참여 지원을 위한 컨설팅도 확대
- **(수원국에 홍보 강화)** 수원국 공무원 대상 워크숍 및 교육과정 등에서 EDCF 사업에 접목가능한 우리의 신기술 적극 홍보
 - 또한 수원국 정부에 우리의 혁신조달제품을 적극 세일즈
- **(기업애로 완화)** 원화가치 하락 및 하도급 대금지급 등 관련 우리 기업의 애로 완화를 위해 수원국 협의 강화
 - 현지 소요비용에 대한 현지화 구매계약(수원국 정부-수주 기업) 체결, 예비비 및 보증유자 사용 등 관련 수원국 협의 강화
 - 하도급사에 대한 원청사의 대금지급 여부를 수원국 정부 및 컨설턴트가 확인하도록 의무 부여 방안 협의
- **(소액차관 한도)** 해외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Track Record 확보 지원을 위해, 소액차관 한도 상향 방안을 검토

2 국민 신뢰 제고

(1) 투명성 제고

- **(사업정보 공개)** 사업 발굴승인~평가에 이르는 쏘단계 정보에 대한 공개원칙 수립으로, 국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
 - * 다만, 입찰 및 수원국의 개발사업 관련 민감 정보 등은 별도 관리
- 타당성 보고서, 심사보고서 등은 EDCF 또는 ODA Korea 홈페이지에 공개 추진
- **(정책실명제·사업이력제)** 사업의 발굴 단계부터 담당자 및 주요 의사결정 이력을 기록하고 데이터화
 - 의사결정 과정을 표준화하고, 부당한 외부 개입을 차단
- **(민간 참여)** 심사~최종 승인 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*
 - * 학계·산업계·시민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의 EDCF 경험사업심의위원회에 참여 추진

(2) 책임성 강화 및 통제장치 도입 등

- **(내부신고제도 강화)** 부당한 정책결정이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'EDCF 전용 내부신고 창구'를 개설
 - 신고 및 조치 사항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필요시 기금운용 위원회에 보고
- **(현장점검)** 매년 특정 지역·분야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및 재외 공관에 의한 모니터링 등* 실시
 - * ('26.3월, 국제개발협력법 개정) 재외공관이 관할구역내 ODA 사업을 파악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에 보고
-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및 승인취소 등도 추진
- **(제재 강화)** 사업추진 과정의 위법·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, 공정한 사업환경 조성

3 개발효과성 제고

(1) 개발수단의 통합 운영

- KSP(무상) - 기술협력(무상) - 인프라(유상) - 사후관리(무상) 등 개발 협력수단을 통합하여 수원국 맞춤형 K-ODA 패키지 제공
 - 국제금융기구 및 他 공여국과 개발협력 연계도 강화
- 수원국의 다양한 사업수요를 기획 단계부터 파악·반영*하고, 원스톱 유·무상 지원의 대표적 성공사례 창출
 - * (예) 마스터플랜 수립 - 사업 구체화 - 인프라 건설 - 운영지원 등

(2) 가시성 제고

- 우리 정부 지원 내용을 수원국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, 기념비·현판 설치 이상의 종합적 방안 마련
 - 단순 EDCF 인프라 구축 사실 전달을 넘어, 인프라 구축 이후 현지 주민 삶의 변화 등 휴먼 스토리를 적극 발굴·홍보

(3) 사업관리 및 집행관리 강화

- **(PMA* 파견)** 대형사업 진행 또는 사업지연 우려가 높은 중점 협력국을 중심으로 사업관리자문단 지속 파견
 - * Project Management Advisor: 수원국 정부에 상주하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기술 행정 지원
 - 또한 완공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·교육훈련 등 운영지원 확대
- **(현지 사업관리)** 유능한 현지 인재를 채용하여, 수원국 정부와 사업관계자 등과의 의사소통 개선 및 관리 실효성 제고
- **(집행관리 강화)** EDCF 집행총량 및 집행 장애요인 등을 보다 면밀히 수시 점검하고, 개선방안을 마련

4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

(1) 기존사업 합리화

-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저하되었거나, 수원국 사정으로 절차가 장기 지연된 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검토
 - 사업 취소로 확보되는 재원은 AI·문화, 공급망 등 핵심 분야에 재투자
- * 취소 사업은 EDCF 홈페이지 등에 공개 예정

(2) 이익 환류

-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한 공적 환류체계 마련으로 국내 수출 생태계 강화에 동참
 - EDCF 낙찰조건부 지원으로 인한 이익 일부는 전략수출금융 기금에 상생기여금으로 납부 추진

(3)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

- **(금리 개편)** 현행 高양허성의 금리체계(0.01%~2.5%)를 개편하여 장기적으로 추가재정 투입을 최소화
 - 他공여국 금리 수준, 국제사회 ODA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금리 인상 추진
- **(채권관리 강화)** 수원국 외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EDCF 채권관리 강화
 - 동시에, 채무국 부채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부채구조 개선을 위한 자발적 내부개혁을 국제 사회에서 지속 요구
- **(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 한도)** EDCF 재원으로 지원하는 경협증진 자금 이차보전에 대해 상한 설정 검토

IV. 향후 추진계획

□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의결('26.4월)

- '26~'28년 EDCF 중기운용방향' 보도자료로 대외 공개
- 수원국 대상 정책협의 등을 통해 내용 공유 및 실시

□ 세부과제별 추진 계획

| 구 분 | 추진 전략 | 일 정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 | AI 요소 내장(AI-embedded) EDCF 인프라사업 지원 | 연중 |
| | 문화 인프라 건설 및 K-컬처 요소 활용 사업 지원 | 연중 |
| | 핵심광물 보유 개도국에 EDCF 지원 확대 | 연중 |
| | 사업참여 지원, 수원국에 신기술 등 홍보 강화, 기업애로 해소 | 연중 |
| 국민신뢰 제고 | 사업정보 공개, 정책실명제·사업이력제 시행 | '26.上 |
| | 심사~승인 과정 민간전문가 참여 | '26.上 |
| | EDCF 홈페이지 내부신고 창구 개설 | '26.上 |
| | 현장점검 및 재외공관 통한 모니터링 등 실시 | 연중 |
| |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방안 마련 | '26.上 |
| 개발효과성 제고 | 유·무상 개발협력수단 통합하여 K-ODA 패키지 제공 | 연중 |
| | 가시성 제고방안 마련 | '26.下 |
| | 현지 사업관리 및 집행관리 강화 | 연중 |
|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 | 기존사업 합리화 | 연중 |
| | 전략수출금융기금 통한 공적 환류체계 마련 | '26.下~ |
| | 금리체계 개편, 경험증진자금 이차보전 상한설정 검토 | '26.上 |
| | 채권관리 강화 | 연중 |